

# 마음에서 마음으로 '허공에 도장 찍기'

그런데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큰 버림[大捨]'은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 허공과 같아져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중간 버림[中捨]'은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대가를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작은 버림[小捨]'은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 바라는 바도 있다가, 마침내 법을 듣고 공(空)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큰 버림은 받길 가는 데 마치 등불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다. 중간 버림은 등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 작은 버림은 마치 등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미래를 버린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3세를 함께 버린 것이다.

버려서 버린 것이 아니다. 다만 취하지 않을 뿐이다. 취하고 버림을 다 나눠줬는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겠나. 버림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한 생각 돌이켜 취하고 버림이 없는 근본 자리에서 버리되 버린 바 없는 버림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여래께서 가섭에게 법을 부촉한 이래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가하였으니,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고 하지만 전해 준 것도, 전해 받은 것도 없이 흘러온 것이다. 모양이 있어야 전해주고 전해 받을 수 있지만,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단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이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 분명해졌고, 가섭존자도 부처님 만나서 깨닫고 난 뒤에는 그 길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법을 부촉 받은 것이다. 이것을 열화미소(拈花微笑)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이 빙그레 미소 지은 것에 천착하는 것은 군더더기에 나가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으로 인연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 성품이 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근본 성품은 부처와 우리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알 때, 마음을 전해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아무런 무늬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물건에다 도장을 찍으면 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찍는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17>



범어사 주지

가섭존자가 부처님 만난 후 깨달음을 분명히 보고 법을 부촉 받은 것 '열화미소'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지은 것에

천착하면 군더더기 불과

부처와 우리가 다름없음을

철두철미하게 알 때

마음전해 받은 것

허공에 도장 찍으면 남지않듯

새가 종일 날아도 흔적없듯

'확철대오' 내려 놓으면 그만

구름이 허공 떠날 수 없듯

법신은 홀연히 일어나

천차만별로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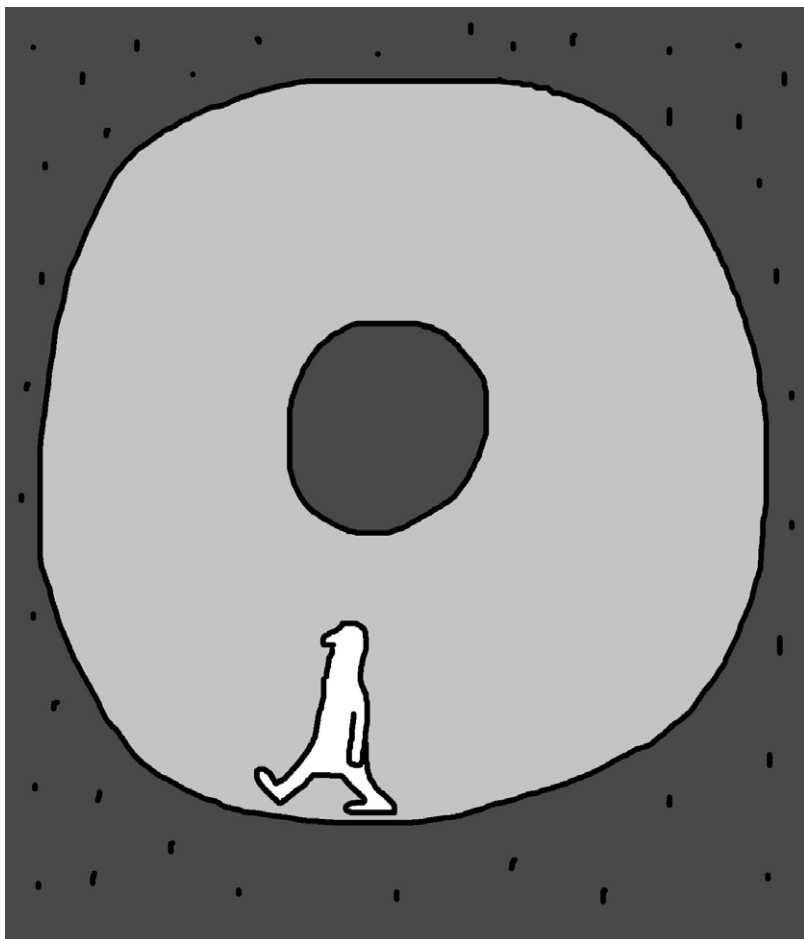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도장을 안 찍는 것이 아니다. 찍긴 찍되 허공에 찍기 때문에,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수용한다. 그것은 변화했다고 할 수도 없고,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내가 쓰는 마음이 돌이 아니지만, 업이 달라서 서로 다른 작용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업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늘 그러한 것이므로, 수미산 같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다. 업을 녹여 없애야 부처된다는 분별이 또 다른 허망한 기운을 만든다. 새가 하루 종일 날아도 흔적이 없듯, 확철대오 해서 내려놓으면 그만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끌고 다니니, 거북이가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꼬리로 쓸지만 다시 그 흔적이 남는 것과 같은 꼴이다.

도장 찍음[能印]과 도장 찍힘[所印]이 함께 계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계합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구름이 아무리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모두 허공에 의지해서 벌어지는 일이지, 구름은 한 번도 허공을 떠날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

그러나 마음은 무심(無心)을 말하는 것이고, 얻음(得)도 얻었다 할 것이 없다.

<반아심경>의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

이다. 근본 실상을 돌이켰을 때,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이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분별하는 모습이 얻었다고 좋아하고 잃어버렸다고 싫어하는 경계를 만들지만,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투철하게 알아서 허망한 기운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께는 삼신(三身)이 있다. 법신은 자성의 허통(虛通)한 법을, 보신은 일체 청정한 법을, 화신은 속도만행 법을 말한다.

부처님께 세 몸이 있다는 말도 허망한 소리다. 부처라는 말도 방편으로 불인 이름인데, 부처를 나눠서 삼신사지(三身四智)를 말하는 것은 실로 허망한 소리다.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할 때 흔히 달과 달빛, 그리고 달그림자에 빗대어 설명한다. 근본 실상의 모습은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해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히 달 모양을 그리면서 어떤 형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법신의 설법은 언어·음성·형상·문자로 써 구할 수 없으며, 설하는 바도 없고 증득할 바도 없이 자성이 허통할 뿐이다.

법신은 그냥 온통 드러났다 해도 그렇고, 사라졌다 해도 그렇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뿐이다. 그런 입장에서 홀연히 움직임이 일어나 천차만별로 벌어진 것이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



### 나의 신력(神力)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서 널리 모든 재앙과 고난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무량수경>

#### 지진과 죽음

지난 주 토요일(12일) 아침 5시 33분 경. 핸드폰이 울린다. 파랗게 번쩍번쩍 불이 들어온다. 열어보니, '지진경보'다. 효고(兵庫)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다. 그 순간, 우리 집이 흔들린다. 다행히 잠시 흔들리다가 멈춘다. 생방송으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진원지는 아와 지시마(淡路島)의 중심부이다. 진원지의 진도는 6.2도이고, 내가 살고 있는 코치(高知)는 진도 3이라 한다.

오전 7시에 기상청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관심의 초점은 '남해대지진'의 전조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남해대지진은 일본의 와카야마현(오사카에서 남쪽으로 있는 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인데, 100년에 한 번 온다는 지진이다. 이미 60년이 지났다. 남해대지진의 진도는 9도 이상이다. 만약 남해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코치 사람들은 2분 안에 대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발표이다. 이번 지진을 전하는 TV화면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다리의 진동이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오사카 시내쪽으로 놓인 큰 다리가 있다. 그 다리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다리 행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속한 속도다. 만약 내가 탄 차가 저 다리를 건너다가 저런 진동을 만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더 심하면, 그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일 아닌가.

#### 타력의 의미

"일본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0%다." 우리는 보지 않았던가. TV로 생중계되는, 저 '3.11 동일본대지진'을 말이다.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은 지진으로 죽는가?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천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할 일이 아닐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면 또 어떤가? 원인을 지어써 결과를 받는 것이니까, 지진으로 죽을 어떤 원인을 지어써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기독교의 목사님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수십 년 불교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인과법(因果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렇

지만 지진으로 죽는 현상은 이 인과법으로도 설명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과문의 탓인지 알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지진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만약 지진을 경험하셨다면, 그 가르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인과의 세계는 자기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세계이다. 하지만 지진과 같은 자연재앙은 인과의 세계도 아니고, 자력의 세계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오늘 밤에 자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信心), 혹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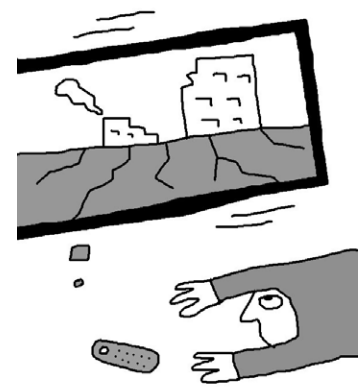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보살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타력은 불교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세계, 자력의 세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인과의 세계나 자력의 세계를 벗어난 곳에 재액이나 고난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심(安心)하고 살아가고, 안심하고 죽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력으로 모든 재앙과 고난을 다 제도해주겠다"는, 또 다른 부처님(아미타불)에게 나의 생명을, 나의 죽을 여하를 다 맡기는 일밖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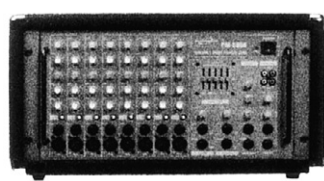
타력의 자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자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불교의 세계를 넓혀준 것이다. 이제 중생이라는 고기를 포획하는 그물의 너비가 더욱 더 커졌다.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고기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어쩔만큼 편안 잠들었다. 잠들 수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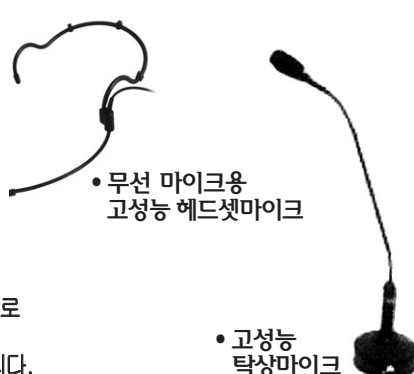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청동불상 조성전문

###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촬영 클릭

주·야 상담합니다